

고려시대 밀교 문헌의 간행 및 특징

Publishing Trend and Characteristic of
Esoteric Buddhism Book in Goryeo Dynasty

임기영 (Lim, Kee-Young)*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2 현존본 |
| 2. 고려의 밀교 수용 및 특징 | 3.3 서지적 특징 |
| 2.1 밀교의 성립 및 전개 | 4. 맺음말 |
| 2.2 시기별 밀교의 특징 | <참고문헌> |
| 3. 밀교 문헌의 간행과 판본 | |
| 3.1 밀교 문헌의 유통 및 간행 기록 | |

< 초 록 >

이 연구는 고려시대에 간행된 다양한 밀교 문헌을 종합하여 살펴본 것이다. 해당 논의에 앞서 고려시대 밀교의 도입과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 밀교의 수용 및 확산에 따른 시기별 특징을 고찰하였다. 고려시대에는 국가적 차원으로 조성된 대장경을 비롯하여 민간 출판물로 간행되었던 다양한 밀교 문헌들이 생산되었다. 이러한 밀교 문헌에는 당시 일반적으로 유통되었던 경전 형태의 간행물 뿐 아니라, 陀羅尼와 曼荼羅 등 낱장 형태의 인쇄물도 적지 않게 남아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고려시대 밀교 문헌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장경을 제외한 사찰이나 사가, 관청 등 민간출판물로 생산된 밀교 문헌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검토 결과, 「長壽經」과 「佛頂心陀羅尼經」 등 특정 밀교 경전의 간행 빈도가 현저하게 두드러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결국, 이처럼 민간에서 이루어진 밀교 문헌의 간행 양상을 통해, 고려시대에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현세구복적인 밀교의 성향을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었다.

要語: 밀교, 밀교 문헌, 대장경, 불교 의례, 陀羅尼經, 眞言

*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impussiant@knu.ac.kr)

접수일: 2014년 5월 28일 최초심사일: 2014년 6월 17일 심사완료일: 2014년 6월 25일

<ABSTRACT>

This study dealt with various Esoteric Buddhism book which had been published in Goryeo Dynasty. In this paper, we examined general aspect of Esoteric Buddhism in Goryeo Dynasty first, and it's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 by period of the Dynasty were reviewed. In Goryeo Dynasty, various books of Esoteric Buddhism were continuously produced by country, governmental office, temple or private house. For example, the collection of the Tripitaka Koreana is representative case. Literature in the category of Esoteric Buddhism was range over old books to Buddha's Mandara and Buddhist formula that is Dharani, a sheet of woodblock-printing so forth. In this study, we mainly focused in the literature by the private, temple and governmental office, that is quite distinguished part to that of by the national level. Consequently, we could find out specific title of books were markedly printed in the Dynasty. That is *Jangsookyung*, *Buljungsimdaranikyung*, *Bumseochongjijip* so on. According to this publishing trend, Esoteric Buddhism of the Dynasty is remained in personal level and people aimed at their private happiness, peace and welfare.

Key words: Esoteric Buddhism, Book of Esoteric Buddhism, The Tripitaka Koreana, Ceremony of Buddhism, Dharanikyung, The words of Buddha

1. 머리말

밀교란 비밀불교를 줄인 말로, 顯敎의 상대 개념이다. 현교는 겉으로 드러나는 가르침을 중요시하는 입장으로, 석가모니의 설법이나 문자를 통한 가르침을 지향한다. 이와 반대로 밀교에서는 문자나 언어에 의한 설법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고, 직관에 의한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그 수행법에서도 현교에서 추구하는 경전 연구나 교리의 탐구보다, 呪文과 陀羅尼를 외우고, 手印을 맺으며, 다양한 형상을 통한 관법 수행의 깨달음에 큰 비중을 두었다.

일반적으로 밀교가 체계화 된 시기는 7세기 중후반 인도에서 성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이전 대승불교 내에 陀羅尼經이 등장한 시기에 이미 밀교의 성립 기반이 확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불교의 한 사상에서 출발한 밀교는 성립된 이후 중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등 주변국으로 빠르게 전파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불교의 수용과 전파라는 흐름과 함께, 밀교가 지향하는 사상적 지향점 및 그 역할과 무관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밀교에서는 주술과 관련된 신앙의 비중이 컸고, 이는 다분히 현세구복적인 신자들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찍이 삼국시대에 밀교가 전래되었으며, 신라시대를 거쳐 고려시대에는 신앙이나 교학, 의례 및 경전의 간행, 신도 등 여러 면에서 그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고려시대 밀교 경전의 간행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에 앞서 먼저 이 시기 밀교의 성립과 전개 양상에 대하여 간략히 짚어보고, 그에 따라 민간 출판물로 생산된 밀교 문헌의 간행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고찰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검토에서 국가 주도의 판각 사업이었던 대장경에 포함된 밀교 문헌은 앞선 연구¹⁾에서 수차례 다루어진 바 있으므로, 중복된 논의는 피하고 그

1) 全宗釋, “고려시대의 밀교 경전 전래 및 조조고,” 『(경해법인 신정오박사화갑기념)佛敎思想論叢』(서울: 하산출판사, 1991), 543-580.

현황만을 개관하였다. 물론,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고려시대 밀교 문헌 역시, 각각의 개별 문헌은 이미 선학들에 의해 고려시대 사찰판 또는 사가판, 고려시대 간행된 불교 문헌이라는 관점에서 자료에 대한 소개와 연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여기서는 고려시대 간행된 다양한 불교 판본 중 밀교 문헌이라는 잣대로 간행물을 추출하여, 문헌의 간행 양상과 성격 및 형태와 내용, 간행 장소 등 그 서지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 고려의 밀교 수용 및 특징

2.1 밀교의 성립 및 전개

2.1.1 밀교의 성립

우리나라에 밀교가 수용된 것은 삼국시대로 소급되지만, 밀교 신앙이 가장 활발하게 융성하였던 것은 고려시대였다. 불교를 국시로 내세운 고려는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았고, 불력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갖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좋은 수행 방법으로 밀교가 대두되었고, 고려는 국초부터 밀교를 적극 수용하였다. 이후 밀교는 중앙에서는 왕실의 옹호 아래 사상의 기반을 확립하였고, 나아가 백성들에게도 깊은 신앙적 의지처가 되었다.

그 결과 밀교는 독자적인 신앙을 형성하였던 것과 동시에 교단으로 발전하여 상당한 교세를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밀교에 대응하는 영역으로 간주하는 顯敎의 여러 교학 사상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던 것²⁾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고려 불교사라는 범주에서 살펴보더라도, 이 시기 불교에서 밀교가 차지하는 사

서운길, 『高麗密敎思想史研究』 (서울: 불광출판부, 1993).

김수연, “高麗時代 密敎史 研究,” (박사학위논문, 이화여대 대학원, 2012) 등.

2) 서운길, “고려 밀교 신앙의 전개와 그 특성,” 『佛敎學報』 제19권 1호(1982), 219.

상성과 의미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고려 초기 밀교의 성립과 그 신앙적 전개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사실은, 신라 말기 밀교 신앙의 확산을 들 수 있다. 밀교 신앙의 확산과 더불어 신라 말기에 두드러진 다양한 밀교 승려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이 시기의 밀교가 고려 초에 특정 종파를 형성시킨 사례가 고구³⁾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제한적으로 남아 전하는 이 시기의 유물을 살펴보더라도, 신라 말기와 고려 초기의 인쇄물은 밀교 사상과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고 있다. 예컨대, 신라 후기에 조성된 불국사의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납탐 공덕, 여러 小塔의 조성에 따른 다라니경의 납입 의식, 통일 신라 758년 유물로 여겨지는 갈항사 『准提眞言』의 간행, 그 밖에 신라 말기에 이루어진 『隨求卽得大自在陀羅尼』와 진언집의 유통 사례가 모두 신라 말기 밀교 신앙의 유행이라는 관점에 따라 일관성 있게 설명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은 개별 유물에 대하여 여러 방면의 연구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羅末麗初의 인쇄물을 바라보는 기본 시각에는 사상적인 공통점이 있었다. 즉, 이 인쇄 자료들은 당시 성행하였던 불교 의식의 결과물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중 상당수는 밀교 신앙의 산물로 조성되었다는 점이다.

2.1.2 밀교의 전개

고려 초기 밀교의 전개는 왕실의 밀교 신앙에 대한 보호 정책과 전반적인 흐름을 같이 한다. 고려는 나라를 세울 당시부터 밀교 신앙과 의식에 관심이 매우 깊었다. 밀교를 포함한 불교사상을 건국이념으로 하였고, 밀교적 수행 의식을 정례화하여 한층 발전시키는 등 안팎의 후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왕실을 중심으로 밀교 신앙의 전통이 확립된 이후에도 역대 왕들은 한동안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갔다.

이처럼 밀교에 대한 왕실의 애호를 기반으로 시작된 고려시대 밀교는, 대체로

3) 高翊晉, 『한국고대불교사상사』 (서울: 동국대학교, 1989), 413.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 및 발전되었다.

첫째, 고려 초기에 형성된 摠持宗과 神印宗 및 고려 중기의 持念業 등 밀교 종파의 성립과 발전으로 신앙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고려시대 밀교의 양대 종파로 알려진 摠持宗과 神印宗은 성립 시점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양 종파 모두 고려 전기에는 종파적 특징이 확립된⁴⁾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리고 종파가 성립된 이후 神印宗은 現聖寺를 중심으로 외적 침입을 막는 도량을 여러 차례 개설하였다. 또한 총지종은 관법 수행을 중요시 하였고, 질병 치유 활동 뿐 아니라 陀羅尼 염송을 통한 국가적 밀교 의례에도 개입한 정황이 다소간 확인되기도 한다.

둘째, 밀교에 대한 신앙과 믿음은 이에 대한 다양한 실천적 모습으로 표출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곧 왕실과 위정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밀교 의례의 실행으로 이어졌다. 고려시대에는 80여종의 法會와 道場 등 국가적 차원의 불교 의식이 실행되었으며, 이러한 의식 중에는 연등회가 157회, 소재도량 147회, 인왕도량 121회, 팔관회 115회 등의 빈도⁵⁾로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이러한 의례 중에 법회 중 消災道場, 仁王道場, 灌頂道場 등 순수한 밀교 의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행사는 국초부터 왕조말기까지 지속적으로 개최되었으며, 개개의 행사는 종파 본연의 근본 사상에서 비롯되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밀교 의례를 비롯한 화엄 법회 등 제종 법회는 넓은 의미에서는 모두 내우외환을 극복하고자 염원하는 호국적 이념에 비롯된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셋째, 밀교 신앙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밀교 문헌의 수집과 정리 및 재생산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곧 밀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전적, 즉 밀교 경전의 수집과 정리 및 간행 활동 또한 임금과 왕실의 주도로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진행되었던 정황을 살필 수 있다.

왕실에서 이처럼 국력을 쏟아서 밀교 전적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간행한 것은

4) 김수연, “高麗時代 密敎史 研究,” (박사학위논문, 이화여대 대학원, 2012), 40.

5) 서윤길, 『高麗密敎思想史研究』 (서울: 불광출판부, 1993), 28.

모두가 밀교에 대한 깊은 관심과 돈독한 신앙심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고려 밀교의 전개 양상에서 마지막으로 지적할 만한 사실은, 이 시기 밀교 신앙은 당시 유행하였던 다른 사상이나 종파와 끊임없이 상호 교섭하고 융합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건국 초기의 밀교가 순수 밀교 신앙의 의식에 입각한 전통적 종파였던 반면, 고려 중기와 후기로 갈수록 같은 시기 유행하였던 다른 종파 즉, 法華나 天台, 정도와 선 사상과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고, 교섭 관계를 맺으면서 그 발전의 폭을 넓혀간 모습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밀교 사상과 타 사상과의 교섭 양상과 상호 관계에 대하여 이미 선학들의 성과물이 다소간 축적⁶⁾되어 있기도 하다.

2.2 시기별 밀교의 특징

이 절에서는 시기에 따른 고려시대 밀교의 전반적인 흐름과 성향을 개관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자세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료와 기록에 의거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이 또한 앞선 연구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존 연구를 토대로, 이 시기 밀교의 두드러진 성향과 특징만을 약속하였다.

다만, 고려시대의 시기 구분은 연구자에 따라 관점의 차이가 있겠으나, 편의상 건국과 더불어 무신란이 발발하는 12세기 후반까지를 고려 전기로 간주하였다. 그 뒤 무신 집권기 1세기, 그리고 무신 정권이 끝나고 개경으로 환도한 원종 11년(1270) 이후의 시점을 고려 후기로 구분하였다.

2.2.1 고려 전기

고려 전기 밀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국가 차원의 밀교 의례가 시작되었고, 이러한 의식들이 정착되어 정례화된 시기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佛頂

6) 서윤길, “고려의 밀교와 정토신앙,” 『東國思想』 제14집(1981), 33-48 외.

尊勝陀羅尼經』을 소의 경전으로 하는 佛頂道場을 비롯하여 文豆婁道場과 仁王道場 등 기존에 없는 밀교 의례가 속속 등장하였던 바, 밀교 의식이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高麗史』 등의 기록에 의하면, 이와 같은 밀교 도량은 개별 의식 때마다 기원하는 바가 있었으나, 대체로 송충이 퇴치와 가뭄으로 인한 기우 또는 전염병을 없애고자 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고려 전기는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밀교 경전의 수집과 간행이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 지지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북송과 遼로부터 입수된 대장경을 바탕으로 자국에서도 대장경과 敎藏 등을 간행하였고, 이 속에는 다수의 밀교 경전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당시 입수된 다양한 밀교 경전과 이들의 章疏類를 통해 볼 때, 직접적인 기록은 전하지 않으나, 밀교 신앙의 교리나 교학적인 부분에서도 체계화를 도모하였던 시기였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현존하는 유물로 추정컨대 고려 전기에는 국가 주도로 조성된 대장경 등의 간행물 뿐 아니라, 지방의 사찰이나 사가에서도 『梵書摠持集』과 각종 다라니경류 등 다양한 밀교 문헌들을 속속 생산해내기 시작하였다.

2.2.2 무신 집권기

무신 집권기는 앞선 시기부터 수십 년간 계속된 외적의 침입과 내부적으로는 반란과 권력 다툼 등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었던 시기였다.

이 시기 밀교의 특징은 우선, 고려 전기의 밀교 의식이 더욱 성행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당시의 주변 환경이 외적의 침입과 정치적 혼란에 더하여, 가뭄과 역병이 횡횡하는 등 정치와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혼란한 시대상은 밀교 의례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에 따라 이 시기에는 천재지변을 기양하기 위한 消災道場과 佛頂道場, 灌頂道場 등의 밀교 의례 설행이 더욱 잦아졌다. 그리고 이러한 도량에서는 주로 전쟁이나 외적의 침입을 막고, 가뭄 등 천재지변의 해소와 전염병의 퇴치 등을 기원하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 또 다른 특징은 사회적 혼란과 더불어 민심이 극도로 동요하였다

는 점을 빠트릴 수 없다. 따라서 밀교의 성향도 불안한 민심을 달래는 쪽을 치우쳤다. 즉, 밀교 교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나 교학에 대한 탐구보다 당장의 불안 요소를 소멸해 주는 주술적이고 신이적인 신앙을 선호⁷⁾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향으로 말미암아 이 시기는 앞선 시기와 달리 개인적 차원의 진언 및 다라니 신앙의 확산을 가져왔다. 그 결과 당시 현존하는 밀교 문헌 중에는 개별 다라니를 비롯하여 『佛頂心陀羅尼經』, 『佛說梵釋四天王陀羅尼經』, 『佛說熾盛光大威德金輪王消災吉祥陀羅尼經』,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등 다라니경류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2.3 고려 후기

이 시기는 元宗 11년(1270) 개경 환도 이후 조선이 건국되기 전까지로, 정치와 사회적으로는 원나라 간섭기와 대부분 중첩된다. 따라서 고려 후기는 자의든 타의든 원나라의 다양한 문화적 영향을 받은 시기였고, 당시 국내의 불교도 원에서 신봉하던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받았다. 14세기 초 충선왕이 티베트 불교 신자였던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밀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시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국가적 밀교 의례가 현격히 축소되었다는 점이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인적 차원의 은밀한 밀교 의식이 확대된 경향을 들 수 있다. 이는 국가 단위의 대규모 불교 의식은 원의 정치적 통제를 받던 시기에 불가피하게 축소되었던 것으로 여겨지고, 그에 따라 밀교 의식은 다분히 개인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고려 후기 사사로운 밀교 의식은 현세구복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고, 다라니 신앙의 확산과 더불어 정토 신앙과 선 사상 등과 융섭하면서 백성들의 생활 전반으로 파고들게 되었다.

물론, 이 시기에도 밀교 문헌의 유통 및 생산은 지속되었으며, 민간 출판물로

7) 서경수, “어말선초 불교의 밀교적 경향,” 『불교철학의 한국적 전개』 (서울: 불광출판부, 1990), 234.

생산된 밀교 문헌 또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다. 고려시대 민간에서 생산된 밀교 출판물 중 이 시기의 것들이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당시 중앙에서 이루어진 밀교 문헌의 생산 사례로, 충숙왕 15년(1328) 왕명으로 『密教大藏』을 金寫하였던 기록⁸⁾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는 기존에 존재하던 『密教大藏』 90권과 더불어 새로 40권을 추가하여 130권을 金寫한 수고로운 작업이었다. 한편, 이 때 새롭게 추가한 『密教大藏』 40권을 당시 고려에 유입된 티베트 불교의 영향으로 보는 관점⁹⁾도 있다.

3. 밀교 문헌의 간행과 판본

고려시대에는 官이나 사찰, 私家를 불문하고 다양한 서적의 출판 활동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여러 출판 주체에 의한 간행 활동 중 대장경을 비롯한 불교 경전의 간행에는 임금 및 중앙에서 이루어진 송과의 대장경의 교류와 지방의 여러 사찰에 의한 출판 활동이 가장 두드러진다.

무엇보다 고려시대에 이루어진 대장경의 조판 활동 및 단행 판본으로 유통된 현존하는 여러 불경 판본으로 짐작컨대, 판본의 간행처는 단연 사찰이 중심이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 시기 사찰에서 간행된 다양한 불교 판본 중에는 고려 불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밀교 문헌들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었다.

이 장에서는 각종 기록 및 현존 판본으로 전하는 밀교 문헌의 간행 및 출판 사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밀교 문헌의 범주는 초기 밀교의 범주였던 진언과 陀羅尼로 대표되는 협의의 범주를 벗어나, 『大日經』과 『金剛頂經』의 양부경전을 중심으로 한 대승 경전내의 주술적 요소를 포함한 후기 밀교의 다양한 경전을 아우르는 넓은 범주의 밀교 문헌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실제적인 관점에서 밀교 경전의 판가를 여부는 『大正新修大藏經』의

8) 『益齋亂藁』 권5 「序」의 「金書密教大藏序」.

9) 邊東明, “충숙왕의 密教大藏 金寫사경,” 『歷史學報』 제184집(2004), 72.

『密教部』에 수록된 571종의 불교 경전을 참고하였다. 이는 연구의 진행 절차상 경전의 내용을 일일이 파악하고 본문의 주제에 의거하여, 경전의 범주를 단정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教藏의 사례와 같이 서명만 전할 뿐,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는 판본들도 적지 않게 남아 있다. 따라서 『大正藏』의 『密教部』 목록은 개별 판본의 밀교 문헌 여부를 판가름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었다.

3.1 밀교 문헌의 유통 및 간행 기록

고려시대 밀교 문헌의 유통 사례를 살펴보기 전에, 이보다 앞선 신라시대 기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이미 신라시대에 우리나라에 유통된 20여종의 밀교 문헌에 대한 기록과 일본 정창원에 소장된 같은 시기 130여종의 밀교 문헌 기록¹⁰⁾을 조사하여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고려시대에는 이보다 많은 밀교 문헌이 유통되고 간행되었던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시대 관찬 사료에 나타나는 밀교 문헌의 간행 기록은 소략한 편이다. 하지만 밀교 문헌으로 전존하는 실물 자료 판본이 상당수 남아 있고, 고려 대장경에 포함된 밀교 경전 또한 350여종 넘게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단행본으로 간행된 밀교 경전 또한 여러 종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시기의 희소한 기록을 보완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밀교 문헌의 유통 기록을 살펴보면, 먼저 고려 초기에 해당하는 10세기 이전에는 송나라로부터 대장경 및 각종 경전을 입수한 기록이 여러 차례 확인된다. 이와 같은 기록 상 당시 입수된 경전의 명칭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중국 대장경의 교류 및 고려시대에 조성된 두 차례의 대장경 및 教藏의 판각 사실은, 그 속에 포함된 밀교 경전이 고려에 유통되었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사례가 된다.

이 시기 중국과의 대장경 유통 및 국내에서 이루어진 대장경의 조성과 판각 활동에 관한 기록은, 성종 10년(991) 송나라 황제가 내려준 대장경 481함을 임금

10) 全東赫, “密教經典의 新羅 傳來考,” 『중앙승가대학교 교수논문집』 제8호(1999), 137-153.

에게 바친 기록¹¹⁾을 필두로 앞선 연구에서 수차례 다루었으므로, 중복된 언급은 생략하기로 한다.

한편, 개별 밀교 경전의 유통 사례로, 현종 11년(1020) 5월에는 獅子座 100개를 內庭에 설치하고 『仁王經』을 3일 동안 강연¹²⁾하였고, 이후 12세기 후반까지 임금이 『仁王經』을 독송한 사례는 여러 차례 기록에 나타난다.

그리고 숙종 5년(1100) 5월에는 임금이 재상들에게 명하여 松蟲이 여러 산에서 해를 끼치니, 京城의 諸山을 순행하며 『般若經』을 읽어 松蟲을 물리치도록¹³⁾한 기록이 보인다. 이와 더불어 예종 3년(1108) 5월에는 『藥師經』을 文德殿에서 독송하여 적병을 물리칠 것을 祈讓¹⁴⁾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명종 16년(1186) 1월에는 병란을 염려하여 光岩寺와 攄持寺에 佛頂消災道場을 설치하고, 『仁王經』 강독에 매진하였다. 또한 元宗 5년(1264)에는 『仁王般若經』 新舊譯 102부를 印成¹⁵⁾하기도 하는 등 이 시기 밀교 경전의 간행 및 독송을 통한 왕실의 신앙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이 밖에 관찬 사료에 나타난 밀교 문헌의 유통 기록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인의 문집 기록 및 『朝鮮王朝實錄』의 내용에 의하면, 당시 유통된 밀교 문헌의 정황이 드러나기도 한다.

예컨대, 李奎報(1168-1241)는 그의 『東國李相國集』에서, 崔相國이 『大悲神呪陀羅尼神呪經』을 深讀한 사실¹⁶⁾을 밝혀두었다. 또한 徐居正은 金堦(1211-1278)의 『中例消災道場音讚詩』를 진재하면서, 『金輪佛頂熾盛光如來消除一切難陀羅尼經』의 유통 기록¹⁷⁾을 간접적으로 알렸고, 李齊賢(1287-1367)도 그의 문집에서 이 시기 『金書密教大藏序』에서 陀羅尼와 『密教大藏』 90권의 통용 사

11) 『高麗史』 권제3 「世家」 권3 成宗 10年(991) 庚寅條.

12) 『高麗史』 권제4 「世家」 권4 玄宗 11年(1020) 庚申條.

13) 『高麗史』 권제54 「志」 권8 五行條. “肅宗五年五月 … 分爲四道巡行京城諸山諷般若經以禳松蟲 遂發 ….”

14) 『高麗史』 권제12 「世家」 권12 睿宗 3年(1108) 戊子條.

15) 『高麗史』 권제26 「世家」 권26 元宗 5年(1264) 己亥條.

16) 『東國理想國集』 권제41 「釋道疏」.

17) 『東文選』 제14권 「中例消災道場音讚詩」.

실¹⁸⁾을 밝혀 두었다. 문집에 수록된 내용에 따르면, 글을 작성한 시기는 충숙왕 15년(1328) 5월이었고, 당시 판본으로 유통된 『密敎大藏』 90권의 내용과 더불어 새로이 40권을 얻어 『密敎大藏』 130권을 재차 金寫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고려시대 기록은 아닐지라도 權近(1352-1409)은 建文 3년(1401)에 廣明寺와 奉先寺의 두 사찰을 짓고, 德安殿에 『密敎大藏經』 한 질을 봉안한 기록¹⁹⁾이 전하기도 한다. 이는 고려시대의 유통본이 조선 초기까지 전래된 사례로 판단된다. 이 뿐 아니라 『朝鮮王朝實錄』 세종 연간의 기록에는 고려본 『密敎大藏』의 유통 사례가 몇 차례 더 확인되기도 한다.

3.2 현존본

현존 판본으로 전래되는 고려시대 밀교 문헌을 살펴보면, 이 시기 밀교 문헌의 외연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즉, 첫째는 국가 주도의 판각 및 조성 활동 하에 이루어졌고, 전존하는 판본의 수량 면에서도 다른 경전과 확연히 구분되는 대장경 및 敎藏에 포함되어 전하는 판본이다. 둘째는 私家나 관청 또는 개별 사찰에서 단행 경전으로 판각된 민간 출판물의 사례가 그것이다. 이들 경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는 앞선 연구에서 언급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현존하는 밀교 판본들을 종합하여 살펴보고, 이 문헌들의 서지적 특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3.2.1 대장경 수록 판본

고려시대에는 중국으로부터 밀교 문헌이 계속해서 유입되었으며, 국내의 사찰에서는 이를 재차 간행하기도 하였다.

앞선 연구²⁰⁾에 따르면, 초조대장경과 재조대장경 및 교장에 포함된 밀교 문헌

18) 『益齋亂藁』 권5 「序」의 「金書密敎大藏序」.

19) 『陽村先生文集』 권13 「記」의 「德安殿記」.

20) 全宗釋, “고려시대의 밀교 경전 전래 및 조조고,” 『(경해법인 신정오박사화갑기념)佛敎思想論叢』 (서울: 하산출판사, 1991), 543-580.

에 대하여 목록을 통하여 356부의 660권에 대한 경전을 제시하여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재조대장경에 포함된 밀교 경전의 세부적인 목록은 기존 연구 성과로 같음하고, 초조대장경의 경우 현재까지 남아 있는 판본 중에서 밀교문헌을 가려뽑아 살펴보았다. 그리고 敎藏 및 재조대장경의 경우도 수록된 밀교 문헌의 특징 및 전반적인 경향을 언급하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3.2.1.1 현존본 초조대장경에 포함된 밀교 경전

초조대장경의 실물 자료에 대하여, 앞선 조사에서는 국내 소장본 157종 214책²¹⁾과 남선사 소장본 548종 1,763책²²⁾과 대마도 소장본 『大般若波羅蜜多經』 628권 등 국내외 소장본 2,500여책 이상의 경전을 검토한 바 있다.

여기서는 南禪寺 및 국내의 각 소장처에 현존하는 초조대장경의 실물자료 가운데 밀교 경전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경전의 나열 순서는 천자문의 합차순을 따랐고, 밀교 경전의 판별 여부는 앞선 연구와 『大正藏』의 『密敎部』 목록을 참고하였다.

<표 1> 南禪寺 소장 初雕大藏經 중의 밀교 경전

연번	經名	번역자	卷次	冊數	函次	千字番
1	佛說仁王般若波羅蜜經	鳩摩羅什(344-414)	卷1-2	2	羽	71
2	虛空藏菩薩神呪經	曇摩蜜多(356-442)	[單卷]	1	吊	97
3	寶星陀羅尼經	波羅頗蜜多羅(565-633)	卷1-10	10	殷	103
4	大乘金剛髻珠菩薩修行分	菩提流志(-727)	[單卷]	1	臣	117
5	大雲輪請雨經	不空(706-774)	卷上	1	大	150
6	佛說灌頂經	帛尸梨蜜多羅(256-335)	卷1-11	10	常	152
7	藥師琉璃光七佛本願功德經	玄奘(602-664)	卷下	1	恭	153
8	佛說藥師如來本願經	達摩笈多(-619)	[單卷]	1	恭	153

21) 고려대장경연구소, 『고려 초조대장경 조사완료 국내보고서』(서울: 고려대장경연구소, 2010).
 22) 남권희, “남선사 초조대장경의 서지적 분석,” 『한국중세사연구』 제28호(2010), 65-136.

고려시대 밀교 문헌의 간행 및 특징

연번	經名	번역자	卷次	冊數	函次	千字番
9	不空羂索神變真言經	菩提流志(-727)	卷11-14, 16-19	8	慕	162
10	不空羂索呪經	闍那崛多(523-600)	[單卷]	1	潔	164
11	不空羂索神呪心經	玄奘(602-664)	[單卷]	1	潔	164
12	不空羂索陀羅尼自在王呪經	寶思惟(-721)	卷上, 下	2	潔	164
13	不空羂索陀羅尼經	李無諂(未詳)	1卷	1	潔	164
14	千手千眼觀世音菩薩姥陀羅尼身經	菩提流志(-727)	[單卷]	1	潔	164
15	佛說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導大悲心陀羅尼經	伽梵達磨(7세기)	[單卷]	1	潔	164
16	觀世音菩薩秘密藏如惹輪陀羅尼神呪經	實叉難陀(652-710)	[單卷]	1	潔	164
17	佛說陀羅尼集經	阿地瞿多(7세기)	卷3, 4, 5, 7	4	効	166
18	大威炬陀羅尼經	闍那崛多(523-600)	卷18-20	3	彼	179
19	大威德陀羅尼經	闍那崛多(523-600)	卷11-20	10	靡	181
20	占察善惡業報經	菩提燈(7세기)	卷上, 下	2	墨	193
21	一字佛頂輪王經	菩提流志(-727)	卷1-5	5	悲	194
22	大陀羅尼末法中一字心呪經	寶思惟(-721)	單卷	1	悲	194
23	廣大寶樓閣善住秘密陀羅尼經	菩提流志(-727)	卷上, 中, 下	3	悲	194
24	牟梨曼陀羅呪經	未詳	[單卷]	1	詩	197
25	舍頭諫晉日太子二十八宿經	竺法護(231-308)	[單卷]	1	思	284
26	讚觀世音菩薩頌	慧智(416-484)	單卷	1	獸	436
27	陀羅尼雜集	未詳	卷1, 3-7, 10	7	啓	444
28	佛說守護大千國土經	施護(10세기)	卷中	1	橐	482
29	聖多羅菩薩一百八名陀羅尼經	法天(-1001)	單卷	1	經	488
30	毗俱胝菩薩一百八名經	法天(-1001)	單卷	1	經	488
31	諸佛心印陀羅尼經	法天(-1001)	合本(四經)	1	經	488
32	大方廣菩薩藏文殊師利根本儀軌經	天息災(-1000)	卷2-5, 7, 12, 19, 20	8	府, 羅	489-490
33	佛說聖寶藏神儀軌經	法天(-1001)	卷上, 下	2	相	492
34	一切如來大祕密王未曾有最上微妙大曼拏羅經	天息災(-1000)	卷3-5	3	路	493
35	佛說大摩里支菩薩經	天息災(-1000)	卷1-4, 6	5	路, 俠	493-494
36	佛說尊勝大明王經	施護(10세기)	[單卷]	1	槐	495
37	佛說如意寶懺持王經, 佛說聖六字大明王陀羅尼經	施護(10세기)	合本(二經)	1	槐	495
38	一切如來說佛頂輪王一百八名讚, 增慧陀羅尼經, 聖六字增壽大明陀羅尼經	施護(10세기)	合本(五經)	1	八	499
39	聖多羅菩薩梵讚	施護(10세기)	[單卷]	1	八	499
40	佛說持明藏瑜伽大教尊那菩薩大明成就儀軌經	法賢(-626)	卷1, 4	2	兵	504

연번	經名	번역자	卷次	冊數	函次	千字番
41	佛說大乘觀想曼拏羅淨諸惡趣經	法賢(-626)	卷上	1	高	505
42	底哩三昧耶不動尊威怒王使者念誦法	不空(706-774)	卷1	1	尹	532
43	菩提場所說一字頂輪王經	不空(706-774)	卷1, 2, 4, 5	4	佐	533
44	佛說雨寶陀羅尼經	不空(706-774)	單卷	1	時	534
45	佛說救拔焰口餓鬼陀羅尼經	不空(706-774)	單卷	1	阿	535
46	八大菩薩曼荼羅經, 能淨一切眼疾病陀羅尼經	不空(706-774)	合本(二經)	1	阿	535
47	金剛頂勝初瑜伽普賢菩薩念誦法	不空(706-774)	卷1	1	衡	536
합계	47종	.	130	119	.	.

<표 2> 국내 소장 初雕大藏經 중의 밀교 경전

연번	經名	번역자	卷次	冊數	函次	소장처
1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玄奘(602-664)	單卷	1	恭	구인사, 영남대 등
2	佛說陀羅尼集經	阿地瞿多(7세기)	卷3	1	效	성암
3	舍利弗陀羅尼經	僧伽婆羅(479-524)	單卷	1	良	호림
4	妙臂印幢陀羅尼經	實叉難陀(652-710)	單卷	1	良	개인
5	無量門破魔陀羅尼經	玄暢(416-484)	單卷	1	良	개인
6	大法炬陀羅尼經	闍那崛多(523-600)	卷19	1	彼	호림
7	大威德陀羅尼經	闍那崛多(523-600)	卷8, 10, 17	3	短, 摩	성암
8	大方等陀羅尼經	法衆(5세기)	卷3	1	使	성암
9	金剛頂瑜伽中略出念誦經	金剛智(669-741)	卷3	1	詩	성암
10	聖持世陀羅尼經	施護(10세기)	單卷	1	璧	수국사
11	舍頭諫太子二十八宿經	竺法護(231-308)	單卷	1	思	연대
12	佛說無能勝幡王如來莊嚴陀羅尼經	施護(10세기)	單卷	1	杜	성암
13	消除一切閃電障難隨求如意陀羅尼經	施護(10세기)	單卷	1	隸	성암
14	佛說大吉祥天女十二名号經	法賢(-626)	單卷	1	佐	호림
15	讀誦佛母大孔雀明王經	不空(706-774)	卷上	1	時	호림
16	佛說一切如來眞實攝大乘現證三昧大教王經	施護(10세기)	卷21	1	沙	성암
합계	16종	.	18	18	.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존하는 국내의 초조대장경에 포함된 밀교 경전의 경우, 함차순은 특정 函次에 편중되었다기보다 함차 전반에 걸쳐 산재되어 편성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편입된 밀교 경전의 한역 시기는 3세기

竺法護에서부터 당나라에 해당하는 8세기 不空 및 초조대장경의 판각이 도모되기 직전인 11세기 초 송나라 法天, 施護, 法賢의 한역본에 이르기까지 두루 포함되었다.

또한 8세기 이전의 번역이 이루어진 『藥師經』이나 『不空羼索神呪心經』 등 밀교 경전의 상당수는 『開元釋教錄』이나 비슷한 시기 중국의 대장경 목록에서도 그 서명이 확인되는 판본들이다. 더불어 이러한 경전의 번역자들 중 특히, 8세기 唐나라 不空은 純密의 대가로 잘 알려져 있고, 10세기 天息災를 비롯한 宋代의 法賢, 施護 등도 이 시기 밀교승으로 이름이 높았던 인물들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별 밀교 경전들에 대하여 각 경전의 구체적인 전래 시기나 입장 시기 및 그 경위에 대하여 자세하게 밝힐 수는 없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조대장경의 입장 목록에는 3세기부터 번역되기 시작한 밀교 경전에서 대장경의 판각 직전 11세기 초까지 번역된 상당수의 밀교 경전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러한 경향으로 볼 때, 인도 및 중국에서 번역된 초기의 밀교 경전 뿐 아니라 11세기 초의 북송 승려들에 의한 한역본 밀교 경전 상당수가 우리나라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고려로 유입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밀교 경전들은 다른 경전들과 더불어 거리낌 없이 초조대장경에 입장되어 판각되고 있었다.

결국, 대장경의 밀교 경전이 상당수 편입된 사실은 고려시대 불교에서 밀교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밀교적 성향의 깊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개별 경전에 대한 연구와 경전을 아우르는 주제 연구를 병행한다면, 고려 불교의 밀교적 성향을 추정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2.1.2 敎藏에 포함된 밀교 경전

초조대장경의 판각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송과 요나라에서 불경의 유입은 계속되었다. 이는 의천의 행적과 그가 판각 사업을 주도한 교장의 사례에서 잘 드러나

고 있다. 물론, 교장 판본 중 현존본이 남아 있는 것이 지극히 일부이고, 교장에 수록된 章疏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의천이 수집한 교장의 목록으로 알려진 『新編諸宗教藏總錄』에 따르면, 『灌頂經』이나 『消災經』 등의 밀교 경전에 대하여 「疏」, 「鈔」, 「科」, 「記」 등의 주석 및 論書들이 간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교장에 포함된 밀교 경전을 살펴보면, 경전을 분류하는 관점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표 3> 교장에 포함된 밀교 경전

연번	經名	章疏名	권수	撰(述)者
1	毘盧神變經	義釋	14	一行(唐, 683-727)
		科, 大科	5, 1	覺苑(遼, 11세기)
		演密鈔	10	覺苑(遼, 11세기)
		胎藏教	3	文一
2	消災經	疏, 鈔, 科	1, 3, 1	福客
		疏, 記, 科	1, 2, 1	靈鑑
3	八大菩薩曼荼羅經	疏, 科	2, 1	思孝(遼)
		崇聖抄	3	志實(遼)
4	釋摩訶衍論	通玄疏	4	志福(遼)
		通玄科, 大科	3, 1	志福(遼)
		通贊疏, 通贊科, 大科	10, 3, 1	安臻(遼)
		贊玄疏, 贊玄科, 大科	5, 3, 1	法梧(遼)
5	灌頂經	疏	1	神曇
6	金光明經	疏	6	真諦(499-569)
		文句	3	天台
		科	2	亡名
		科文, 大科	3, 1	知昭
		述贊	7	憬興(新羅)
		玄義	1	天台
		玄義科	1	知禮(宋, 960-1029)
외 14종	61	.		
7	仁王經	疏	4	玄範(唐)
		古迹記	1	太賢(新羅)
		科	4	道初
		외 9종	40	.

연번	經名	章疏名	권수	撰(述)者
8	藥師經	疏	1	靖遇
		義玄鈔	5	圓鏡
		의 5종	6	.
9	本生心地觀經	文殊說般若經疏	2	智圓(宋, 976-1022)
		疏	8	士安
		科, 大科	3, 2	雲普
10	大寶積經	普入不思議法門經疏	1	智圓(宋, 976-1022)
		妙慧童女會疏, 科	2	思孝(遼)
11	天請問經	疏	1	文軌
		廣勝鈔, 科	3	省辯
합계	11경전	75종	268권	.

이상과 같이 교장에 포함된 밀교 경전은 11경전의 75종 권수로는 268권에 달한다. 물론, 상기의 표에서 제시된 경전 외에도 연구자나 관점에 따라 그 종수를 훨씬 넓게 포함시키거나, 또는 대폭 줄여 밀교 경전으로 판단하는 다양한 관점이 있다.

하지만 위의 표에서는 앞선 여러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밀교 경전으로 분류한 경전들을 채기하였다. 상기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장에 포함된 밀교 경전 및 주석서에는 唐과 신라, 송과 요나라 승려의 찬술서들이 고루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 요나라 승려의 주석서가 다수 눈에 띄고, 이는 요나라의 불교 성향을 언급할 때, 흔히 화엄 사상과 융합된 밀교적 색채가 가장 두드러진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시 말해, 송과 요에서 성행하던 밀교승들의 주석서가 고려로 유입되었던 사실을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된다.

또한 이 경전들이 수록된 위치나 비중을 감안하면, 『華嚴經』이나 『法華經』과 버금가는 층위로 파악되므로, 이러한 편성 방식에서 고려 불교계의 밀교에 대한 입장을 추측²³⁾해 볼 수 있다.

더욱이, 교장에 수록된 경전 중 『消災經』은 『佛說大威德金輪佛頂熾盛光如來

23) 김수연, “高麗時代 密敎史 研究,” (박사학위논문, 이화여대 대학원, 2012), 83.

消除一切災難陀羅尼經』으로 고려시대 밀교 의례 가운데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消災道場의 소의경전 중의 주석서도 많이 유입되었다. 이와 더불어 상기 경전 중 중기 밀교의 핵심 경전의 하나로 알려진 『毘盧神變經』이 포함된 사실 또한 당시 불교의 밀교적 성향을 파악하는 관점에서는 반드시 주목할 만하다.

3.2.1.3 再雕大藏經에 포함된 밀교 경전

재조대장경에 포함된 밀교 경전과 경전의 성격에 대하여는 전술한 바와 같이, 全宗釋에 의하여 356부 660권에 대한 개별 목록 및 이 경전들에 대한 성격이 논의된 바²⁴⁾ 있다.

따라서 밀교 경전에 대한 자세한 목록은 앞선 全宗釋의 연구 성과로 대체하고, 수록된 밀교 경전과 이 경전들로부터 추정되는 고려 불교의 밀교적 성격은 다음과 같이 짧게 요약된다.

즉, 논의의 핵심은 고려의 밀교는 당나라 승려 不空에 의하여 결집된 정순 밀교와 화엄종이나 정토종 또는 선종에 다라니 사상이 융합된 송나라의 잠밀 사상이 녹아든 복합적 성격이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재조대장경의 밀교 경전에서 추정해 볼 때, 고려의 밀교 성향은 純密과 雜密이 혼합된 순수혼합의 밀교였으며, 이러한 성향은 연이어 후술하게 될 私家와 개별 사찰의 밀교 경전 판각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3.2.2 私家, 官廳 및 개별 사찰 간본

고려시대에는 중국과 이루어진 활발한 불교 문헌의 교류는 물론, 국가적 사업으로 두 차례에 걸친 대장경의 조조 활동에 많은 공력과 물력이 집중되었다. 그 결과 고려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불교 문헌이 생산되었고, 이와 같은 서적의 생산

24) 全宗釋, “고려시대의 밀교 경전 전래 및 조조고,” 『(경해법인 신정오박사화갑기념)佛敎思想論叢』(서울: 하산출판사, 1991), 543-580.

활동에는 국가 주도의 출판과 더불어 私家 및 지방 관청 또는 여러 사찰에서 이루어진 독자적인 판각 활동 또한 중요한 몫을 담당하였다.

결국 당시의 민간 출판에 생산된 문헌으로 약 100여종 이상의 다양한 불경 및 다라니와 만다라 등 낱장 인쇄물이 전하계²⁵⁾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불교 출판물 중에는 밀교 문헌 또한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시기 사찰 등지에서 출판된 다양한 밀교 문헌들을 종합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밀교 문헌의 범주는 사가 및 사찰에서 간행된 단행 경전은 물론, 眞言과 陀羅尼, 曼荼羅 등의 개별 인쇄물까지 포함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료의 검토 영역에서는 연구자가 이 시기 밀교 문헌을 새롭게 발굴하거나 인본을 추가하는 것은 역량 밖의 일이었고, 선학의 연구를 정리하는 수준으로 진행하였음을 밝혀둔다.

3.2.2.1 11-12세기

현재까지 알려진 고려시대 간행된 밀교 문헌 가운데 가장 빠른 경전은, 10세기 고려 목종 10년(1007)에 간행된 『一切如來心秘密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經』이다. 이 밀교 경전은 인도 승려 不空(705-774)이 大曆 7년(772)에 번역한 것으로, 다라니를 탐에 봉안하고 공양하면 모든 여래가 이를 보호할 것이라는 공덕을 설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승려 弘哲이 발원하여 開成 攄持寺에서 판각해 내었고, 폭 5.4cm에 길이 240cm의 권자본으로 권수에 변상도가 새겨져 있다.

이로부터 얼마 뒤 靖宗 11년(1045)에는 『佛說解百生冤結陀羅尼經』이 金之成에 의하여 간행되었다. 이 다라니경 또한 解百結眞言과 그 공덕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보광보살의 이름과 다라니를 독송하면 죄와 원수가 소멸될 수 있음을 설하고 있다.

한편, 12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梵書攄持集』이 몇 차례 간행된다. 이 시기 인본 중에는 ‘梵字大藏’이라 새겨지기도 하였고, 이칭으로 ‘梵字陀羅尼集’ 등으

25) 남권희,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3-105.

로도 불리는 이 판은 다라니 모음집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안동 보광사의 불복장으로 발견된 『범서총지집』에는 毅宗 4년(1150)에 새기진 『大日經等一代聖教諸經中所說一切秘密陀羅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다라니는 跋文에 나타난 기록²⁶⁾에 의해, 의종 4년(1150)에 王의 萬壽와 法界의 布施를 위해 平壤 廣濟鋪에서 開板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에서 발견된 『梵書摠持集』을 들 수 있다. 이 복장물의 다라니 중에는 毅宗 6년(1152)에 讖장 인쇄물로 『一切如來心秘密全身舍利寶篋陀羅尼』가 포함되어 있다. 이 다라니는 승려 道輝가 써서 海眞寺에서 간행된 목판의 밀교 다라니이다. 그리고 함께 발견된 『梵書摠持集』의 일부로 의종 10년(1156)에 간행된 『大毘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教中無上一乘諸經所說一切陀羅尼經』²⁷⁾이 있었다. 이 다라니경은 大麟 등이 板刻에 참여하였으며, 전체 48장을 이은 긴 卷子本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 밖에도 명종 14년(1184) 2월에는 『如意寶印大隨求陀羅尼』가 지금의 충주 일대 中原府에서 간행²⁸⁾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요컨대, 고려시대 다라니를 중요시하는 밀교의 종파는 신라의 전통이 이어져 神印宗과 持念業으로 맥을 이었다. 물론, 이러한 양 종파 뿐 아니라 陀羅尼와 眞言의 독송을 통한 소재기복의 염원은 고려시대 밀교 전반에서 나타나는 성향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소재와 求福 신앙은 이 시기 문헌으로 주로 남아 있는 『梵書摠持集』을 비롯한 개별 다라니 및 『陀羅尼經』류의 판본과 무관하지 않았다.

26) 時庚午歲六月卜日 海東長安廣濟鋪開板印施 無窮奉祝聖壽萬年兼冀法界有識含靈共證菩提者禪師思遠重校.

27) 남권희(2002), 38.

28) 남권희, “한국 기록문화에 나타난 眞言의 유통,” 『密教學報』 7집(2005), 86.

<표 4> 현존하는 11-12세기 밀교 판본

연번	시기	경명	권차	간행처	비고
1	穆宗 10년(1007)	一切如來心秘密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經	·	開成 攄持寺	권자본
2	靖宗 11년(1045)	佛說解百生冤結陀羅尼經	·	·	절첩
3	毅宗 4년(1150)	梵書攄持集[大日經等一代聖教諸經中所說一切秘密陀羅尼]	·	平壤 廣濟鋪	날장
4	毅宗 6년(1152)	一切如來心秘密全身舍利寶篋陀羅尼	·	海眞寺	날장
5	毅宗 10년(1156)	梵書攄持集[梵字大藏]	·	·	날장
6	毅宗 20년(1166)	梵書攄持集[大毘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教中無上一乘諸經所說一切陀羅尼經]	·	[夾州 法水寺]	권자본
7	明宗 14년(1184)	如意寶印大隨求陀羅尼	·	中原府(忠州)	날장

3.2.2.2 13세기

고려시대의 12세기 말부터 13세기 후반까지는 무신 집권기로 대변되고, 이 시기 간행된 밀교 문헌 중에는 崔忠獻, 崔怡 등 집권자들의 무장을 비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즉, 이러한 인쇄물은 당시 밀교 다라니 신앙의 현세 구복적인 측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로 보인다.

13세기 밀교 문헌으로는 먼저, 熙宗 2년(1206) - 高宗 6년(1219) 사이에 관각된 것으로 여겨지는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이 간행되었다. 이 다라니경은 수진본 형태로 최충헌과 그의 두 아들의 호신을 위해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녔던 판본²⁹⁾으로 여겨진다. 새겨진 곳은 사찰보다는 최충헌 집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최씨 일가의 수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시기 高宗 3년(1216)에는 이 경전과 유사한 의도로 새겨진 『佛說熾盛光大威德金輪王消災吉祥陀羅尼經』이 간행되기도 하였다. 사가판으로 간주되는 이 다라니경은 崔瑀의 수복 무장을 위하여 崔瑀의 부하로 여겨지는 金叔龍이 판각을 도모한 것이다.

또한 高宗 5년(1218)에는 『梵書攄持集』이 간행되었으며, 그 속에는 「大日經等一代聖教諸經中所說一切秘密陀羅尼」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총지집」에는

29) 남권희(2002), 38.

서문과 간기가 있어서 金山寺의 惠謹이 발원하여, 開泰寺의 仁赫이 판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록된 내용으로 볼 때, 『大毘盧遮那成佛經疏』 등 唐代的 밀교 경론과 요나라의 밀교 저술까지 폭넓게 인용³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종 15년(1228)에는 화성 鳳林寺 복장 유물로 발견된 『梵[書]摠持集』이 간행되었다. 5장의 낱장 유물인 이 다라니집은 발원문이 없어서 정확한 간행 경위를 밝히기 어렵다. 다만, 함께 발견된 소자본 『金剛般若波羅密經』 등의 복장 유물과 동시기의 것으로 추정되고, 慧謙과 慧歸 등이 간행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추정³¹⁾된다.

한편, 고종 23년(1236)에는 『佛說梵釋四天王陀羅尼經』이 판각되었다. 해인사의 사간판으로 남아 전하는 이 다라니경은 각수 大升이 해인사에서 판각한 밀교 경전이다. 권말의 발문에는 외적을 격퇴하고, 나라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원³²⁾한 사실을 밝혀두었다.

그리고 고종 28년(1241)에는 尙書吏部侍郎 李某가 崔怡의 수복무강을 빌기 위하여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을 간행³³⁾하였다. 이 밖에도 고종 연간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이 판각되기도 하였다. 화성 용주사에 소장된 이 다라니경은 앞서 살펴본 두 다라니 경전과 같이 崔瑀 일가의 수복 강령을 기원하고자 판각되었다. 李紘과 文光이 발원한 다라니경으로 추정된다.

13세기 후반에 접어들어 충렬왕 4년(1278)에는 新荷寺에서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이 正玄과 田盧의 발원으로 판각되었다. 이와 더불어 충렬왕 18년(1292)에는 『一切如來心秘密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經』이 판각되었다. 이 다라니경은 贊成事 廉康碩 등과 供物色員 李芝 등이 함께 發願하여 사찰관련 업무를 맡아보던 僧齋色에서 간행³⁴⁾된 것이다.

30) 김수연(2012), 93.

31) 김수연(2012), 94.

32) 임기영, “해인사 사간판전 소장 목판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9), 41.

33) 천혜봉, 『한국전적인쇄사』 (서울: 범우사, 1990), 190.

34) 남권희(2002), 34.

또 이듬 해(1293)에는 仁興社에서는 『大悲心陀羅尼經』의 판각되었다. 禪隣이 주도하여 경상도 비슬산 인흥사에서 새겨낸 판본이다. 이 다라니경 외에도 禪隣은 인흥사에서 『人天寶鑑』과 『法華經普門品』 등도 간행해 내었으며, 이러한 판각 활동은 13세기 후반 仁興社가 현실 구원과 실천의 성격을 관음신앙을 표방하고, 더불어 다라니 신앙을 강조하였던 도량³⁵⁾이었던 사실과 관련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낱장의 인쇄물로 13세기 후반에 간행된 曼荼羅도 여러 종 남아 있다. 그 중에서 간행 기록을 밝힌 『梵字圓相胎藏界曼荼羅』의 경우 본문에 나열된 여러 진언을 충숙왕 28년(1295)에 새긴 사실³⁶⁾을 밝혀 두기도 하였다. 曼荼羅는 범자 진언을 여러 형상으로 나열하여 주술적 공덕을 기원하고, 밀교 의식이나 수행에 활용되었으며, 陀羅尼와는 수록된 내용이나 기능면에서 큰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3세기의 밀교 경전에는 현세 구복적인 기록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밀교 문헌에 수록된 발원문에 따르면, 집권층의 수복과 안녕 또는 외적을 물리치거나 나라의 평화를 기원하는 내용이 여러 종 남아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 미루어 무신 집권기였던 13세기에는 밀교의 다라니 신앙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료의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비록 낱장의 인쇄물로 남아 있다 하더라도, 당시 제작된 陀羅尼와 曼荼羅, 또는 범자 다라니집은 이 시기 밀교 신앙의 핵심 자료로 간주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별 자료의 제작 공덕 또한 다른 밀교 경전들 못지않게 높히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35) 채상식, 『高麗後期佛敎史研究』 (서울: 一潮閣, 1996), 170-175.

36) 허홍식 외저, 『高麗의 佛服藏과 染織』 (서울: 계몽사, 1999), 151.

<표 5> 현존하는 13세기 밀교 판본

연번	시기	경명	권차	간행처	비고
1	熙宗 2 - 高宗 6년 (1206-1219)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	·	사가관	권자본 보물 691호
2	고종 3년(1216)	佛說熾盛光大威德金輪王消災吉祥陀羅尼經	·	사가관	권자본
3	고종 5년(1218)	梵書摠持集	·	開泰寺	날장 수매
4	고종 15년(1228)	梵[書]摠持集	·	·	용주사 소장
5	고종 23년(1236)	佛說梵釋四天王陀羅尼經	·	海印寺	날장(2매)
6	고종 28년(1241)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	사가관	권자본
7	고종 연간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	·	사가관	용주사 소장본
8	충렬왕 4년(1278)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	新荷寺	해인사 소장
9	충렬왕 18년(1292)	寶篋印陀羅尼經	·	僧齋色	·
10	충렬왕 19년(1293)	大悲心陀羅尼經	·	仁興社	절첩본
11	충렬왕 21년(1295)	梵字圓相胎藏界曼荼羅 [외] 다수	·	·	·

3.2.2.3 14세기

고려 후기에도 밀교 문헌의 간행은 지속되었다. 충렬왕 27년(1301) 즉, 大德 5년의 간기를 가진 『金剛界曼荼羅』를 비롯하여, 비슷한 시기 제작된 曼荼羅가 여러 점 남아 있다. 또 같은 해(1301)에는 『佛頂心觀世音菩薩姥陀羅尼經』이 간행되기도 하였다. 한문과 한자가 병기된 날장의 다라니 인쇄물로 ‘大德五年五月五日 權暉書’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을 쓴 서사자 權暉에 대하여 1302년 외교문서를 작성하고, 佛疏를 쓰게 했을 때 여러 차례 합격한 인물로 權暉와 동일인으로 간주³⁷⁾하는 관점도 있다.

충렬왕 32년(1306)에는 『佛頂心呪經』이 간행되었다. 호신용으로 휴대하기 위하여 제작된 수진본으로 이 시기 밀교 문헌의 전형적인 형태로 판각되었다. 이 심주경을 판각하게 된 동기는 부모가 수복을 누리고, 자신에게 닥친 재앙이 없어 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高敞郡夫人 吳氏의 시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판을 새긴 시점은 大德 11년(1306) 2월이었다.

37) 허홍식, 『한국중세불교사연구』 (서울: 一潮閣, 1994), 253.

또한 충숙왕 17년(1330)에는 『佛頂尊勝陀羅尼經』이 天磨山 寶城寺에서 개판³⁸⁾되었다. 이 다라니경은 佛陀波利가 번역한 밀교 경전으로, 진언을 독송하여 죄를 씻고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효험을 설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충숙왕 복위 4년(1335)에는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이 새겨졌다. 御梅縣에 거주하는 男兒가 발원하여 새겨진 판으로, 불자 신도여던 일반 백성의 발원으로 판각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소재 기복의 발원 기록과 수진본 또는 소형 권자본 형태의 판각 방식은 당시 사가나 사찰에서 성행하였던 밀교 신앙의 주술적 단면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여겨진다.

이로부터 얼마 뒤 충혜왕 복위 3년(1342)에는 順政郡 부인 安氏가 돌아가신 부모와 집안의 평안을 빌기 위하여 절첩본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을 간행하였다. 한편, 충목왕 2년(1346)경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文殊寺 복장물에는 『佛頂放無垢淨光明陀羅尼經』 외 진언집 여러 점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 문수사 복장물 중 의복과 천을 제외한 인쇄물은 주로 陀羅尼와 만다라, 진언집 등 밀교 문헌으로 일관된 자료들이었다.

고려 말기 공민왕 시기에 이르러 공민왕 1년(1352)에는 中郎將 南宮伯이 재화를 대고, 法玄이 판을 새긴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이 간행되었다. 또한 공민왕 14년(1365)에는 『正本一切如來大佛頂白傘蓋摠持』가 牛頭山 見岩寺에서 새겨졌다. 권말에는 승려 惠一이 발원하여 비구 達田이 판을 새긴 기록을 밝혀 두었다. 『총지집』의 본문은 진언과 呪文을 비롯하여 모두 6개의 다라니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 밀교 판본은 우왕 1년(1375)에 동일한 서명으로 지리산의 無爲菴에서 중간되기도 하였고, 이와 함께 『佛頂尊勝陀羅尼經』이 간행되기도 하였다. 같은 시기에 판각된 점으로 미루어, 이 밀교 판본들은 사찰의 밀교 의식에 활용되었던 정황이 짐작되기도 한다.

이듬 해(1376)에는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이 재차 간행되기도 하였고, 변상도가 첨부된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이 우왕 4년(1378)에 새겨졌다. 이 『장수경』은 보물 701호로 지정된 리움박물관 소장본으로 自延이

38) 천혜봉, 『韓國典籍印刷史』(서울: 범우사, 1990), 102.

판각 사업을 주관하였고, 法弘과 金臣桂가 재화를 보태어 새겨낸 판본이다.

이 밖에도 간행 관련 기록은 없으나, 고려 후기 판각으로 여겨지는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이 전하고 있다. 기림사 복장 유물로 발견된 이 경전은 절첩본 양식으로 한 면에 5행 17자의 글자를 새겼다. 또한 고려말 간본으로 여겨지는 『佛頂心陀羅尼經』이 판각되기도 하였다. 개인 소장으로 전하는 이 다라니경은 소형의 권자본 형식으로 판각되었고, 본문의 분량은 전체 8장에 달하며, 1행에는 漢字가 8자씩 배열³⁹⁾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고려 후기 간본으로 간기를 밝히지 않은 밀교 문헌이 몇 종 더 남아 있다. 간행 시기가 14세기 말로 추정되는 海南 大興寺에서 판각된 『梵書摠持集』을 비롯하여, 金井山 中鳳菴에서는 ‘辛亥’의 간기를 가진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이 전존한다. 또한 해인사 사간관으로 大字와 小字의 『佛說天尊却溫黃神呪經』 2종과 더불어 개인 소장으로 전하는 각기 다른 3종의 『梵書摠持集』도 현존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 종에서는 권말에 清河相國의 복수무강을 비는 발문이 기록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고려 말에 이르러서도 밀교 문헌은 꾸준히 간행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간행의 배경에는 과도기의 불안한 민심과 왕조 말 현실적인 불안 요소가 밀교 신앙에 결합된 결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는 밀교 문헌의 간행 활동으로 표출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다라니경』류의 간행 증가는 고려 말 불교에서 주술적 요소가 더욱 농후해지고, 불안한 민심은 고유 신앙과 더불어 진언과 다라니 신앙의 주술적 신비성에 깊이 의지⁴⁰⁾한 경향과도 부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처럼 생활 전반으로 확대되었던 고려 후기의 밀교는 조선에 이르러 배불 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밀교 신앙은 조선시대에도 완전히 소멸되기보다 다소 축소된 방식이나마 고유의 명맥을 이어가게 되었다.

39) 남근희, “한국 기록문화에 나타난 진언의 유통,” 『密教學報』 7집(2005), 116.

40) 徐景洙, “여말선초 불교의 밀교적 성향,” 『한국밀교사상연구』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86), 347.

<표 6> 현존하는 14세기 밀교 판본

연번	시기	경명	권차	간행처	비고
1	충렬왕 27년(1301)	金剛界曼荼羅	·	·	·
2	충렬왕 27년(1301)	佛頂心觀世音菩薩姥陀羅尼經	·	사가관	·
3	충렬왕 32년(1306)	佛頂心呪經	·	·	수진본,은합
4	충숙왕 17년(1330)	佛頂尊勝陀羅尼經	·	寶城寺	·
5	충숙왕 복위 4년(1335)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	·	·	해인사 소장 사간관
6	충혜왕 복위 3년(1342)	佛說長壽減罪護諸童子陀羅尼經	·	사가관	절첩본
7	충목왕 2년(1346)	佛頂放無垢淨光明陀羅尼經 외 曼荼羅, 陀羅尼集	·	·	文殊寺 服藏
8	공민왕 1년(1352)	佛說長壽減罪護諸童子陀羅尼經	·	사가관	·
9	공민왕 14년(1365)	正本一切如來大佛頂白傘蓋摠持	·	牛頭山 見岩寺	절첩본
10	우왕 1년(1375)	正本一切如來大佛頂白傘蓋摠持	·	智異山 無爲菴	절첩본
11	우왕 1년(1375)	佛頂尊勝陀羅尼經	·	無爲菴	·
12	우왕 2년(1376)	佛說長壽減罪護諸童子陀羅尼經	·	·	·
13	우왕 4년(1378)	佛說長壽減罪護諸童子陀羅尼經	·	사가관	절첩본
14	고려 후기	佛說長壽減罪護諸童子陀羅尼經	·	·	祇林寺 복장 절첩본
15	고려 후기	佛頂心陀羅尼經	·	·	권자본
16	고려 후기	梵書摠持集	·	·	·
17	고려 후기(辛亥)	佛說長壽減罪護諸童子陀羅尼經	·	·	권자본
18	고려 후기	佛說天尊却溫黃神呪經	·	·	권자(大字)
19	고려 후기	佛說天尊却溫黃神呪經	·	·	권자(小字)
20	고려 후기	梵書摠持集	·	·	날장(단편)
21	고려 후기	梵書摠持集	·	·	날장(수매)
22	고려 후기	梵書摠持集	·	·	大興寺 복장

3.2.3 사경

간행물 뿐 아니라 필사된 방식으로 전하는 사경 역시 당대 의식의 발현이며, 경전에 투영된 사상성 또한 간행본 못지않다. 현존하는 고려시대 사경은 『法華經』류와 『華嚴經』류가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그 중 일부는 밀교의 주제와 의식을 담고 있는 밀교 경전이 남아있다. 이러한 사경들을 작성된 시기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1세기에 사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佛說度厄經』, 『佛頂心陀羅尼經』 권하,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의 3종의 목서경⁴¹⁾이 전한다. 백지에 묵서된 이 3종의 사경은 같은 시기 사성된 것으로, 경전의 앞뒤에 진언과 부적이 필사되어 있다. 또한 같은 시기 사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백지묵서 『大悲心陀羅尼啓請』 또한 다라니와 진언의 독송을 통해 불심을 얻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내용을 수록하였다.

한편, 13세기 밀교 사경으로 충렬왕 원년(1275)에는 『不空羂索神變眞言經』 권제13이 사성⁴²⁾되기도 하였다. 삼성미술관에 소장된 이 사경은 지원 12년(1275) 율해에 고려 국왕의 명으로 제작된 은자경이다.

또한 13세기 말 충렬왕 12년(1286)에는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이 墨書된 형태로 남아 있다. 권말의 기록에 의하면, 金延과 朱万이 시주하여 墨寫한 사경⁴³⁾임을 알 수 있다.

한편, 14세기 초에 사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佛說大吉祥陀羅尼經』과 『佛說普賢陀羅尼經』이 남아 있다. 두 사경은 합본으로 전해지며, 경전의 말미에 간지로 ‘甲子’년의 표기가 남아 있는 국왕발원 금자 사경이다. 이 밀교 사경의 작성 시기는 충숙왕 11년(1324) 갑자년으로 考究⁴⁴⁾된 바 있다.

이 밖에도 14세기 초 충숙왕 대에 사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慈賀縣 西明寺 소장의 『蘇悉地羯羅供養法』⁴⁵⁾도 灌頂과 眞言, 手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밀교 사경의 하나이다. 그리고 14세기 중엽 恭愍王 13년(1364)에도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이 白紙에 묵서되어 전하며, 공민왕 19년(1370)에 사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주 기림사 소장 백지 金泥의 『佛說長壽滅罪經』도 남아 있다.

41) 남권희(2002), 348.

42) 권희경, 『고려의 사경』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6), 47.

43) 南權熙,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의 판본 연구,” 『國會圖書館報』 제38권 6호 (2001), 85.

44) 권희경(2006), 53-57.

45) 권희경(2006), 296.

이상에서 논의된 현존하는 고려시대 사경 중 밀교 경전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7> 현존하는 고려시대 밀교 사경

연번	시기	경명	권차	비고
1	11세기	佛說度厄經	·	목서
2	11세기[1071]	佛說長壽減罪護諸童子陀羅尼經	·	목서, 辛亥七月
3	11세기[1081]	佛頂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	卷下	목서
4	11세기	大悲心陀羅尼啓請	·	목서(수진본)
5	충렬왕 원년(1275)	不空羼索神變眞言經	권13	감지 銀書
6	충렬왕 12년(1286)	佛說長壽減罪護諸童子陀羅尼經	·	목서
7	14세기 초	蘇悉地羯羅供養法	卷上	감지 金書
8	공민왕 13년(1364)	佛說長壽減罪護諸童子陀羅尼經	·	목서
9	[공민왕 19년](1370)	佛說長壽減罪經	·	감지 金書

3.3 서지적 특징

대장경에 포함된 밀교 경전들의 목록 및 그 성격에 관한 논의는 앞선 연구에서 이미 이루어진 바 있다. 이 절에서는 민간 출판으로 간행된 밀교 문헌의 간행 양상 및 특징을 개관하여 보았다.

이와 같은 검토의 대상에서 대장경의 밀교 문헌을 제외한 것은, 사찰이나 사가 또는 지방의 官廳에서 간행된 밀교 문헌들이 당시 민간 불교의 밀교적 성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3.3.1 간행 빈도

먼저, 고려시대 사가 및 사찰에서 유통된 밀교 문헌의 시기별 종수 및 빈도를 일별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에 앞서 미리 예측된 경향이었으나, 고려 후기로 갈수록 전존하는 밀교 문헌 또한 많이 남아 있었다. 이는 앞선 시기의 유물이 희소하게

전하여진 탓도 있을 것이고, 시기별로 유행한 신앙이나 사상과도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현존하는 자료 중에는 11세기 6종, 12세기 5종, 13세기 13종, 14세기는 25종의 밀교 문헌이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에는 특정 시기의 낱장 曼荼羅와 陀羅尼 유물의 개별 종수 산정 여부나 경전에 대한 밀교 문헌의 판단 여부 등 종수에 대한 기초적인 관점의 차이도 있으므로, 밀교 문헌의 종수에 대한 절대적인 수치가 아님을 감안하여야 한다.

더불어 11세기와 12세기는 초조 및 교장의 판각 시기였고, 13세기는 재조대장경이 동시에 조조되고 있었으므로, 전존하는 밀교 문헌의 종수에 대한 단순 수치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다만, 13세기 이후 고려 후기로 갈수록 밀교 문헌의 종수가 증가하는 것은, 밀교 의식이 일상화되고 왕조 말기의 혼란에 따른 현세 구복적인 다라니 신앙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던 사실과의 관련 여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경전의 간행 빈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즉, 당시의 밀교 문헌 중 2차례 이상 간행된 문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2회 이상 간행된 고려시대 밀교 문헌

연번	경전명	간행 연도	간행 회수
1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문종25(1071, 사경) 고종28(1241) 충렬왕4(1278) 충렬왕12(1286, 사경) 충혜왕3(1342) 공민왕1(1352) 공민왕13(1364, 사경) 공민왕19(1370, 사경) 우왕2(1376) 우왕4(1378) 고려후기1 고려후기2	12

연번	경전명	간행 연도	간행 회수
2	梵書摠持集	의종4(1150) 의종10(1156) 의종20(1166) 고종5(1218) 고종15(1228) 고려후기1 고려후기2 고려후기3 고려후기4	9
3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 (佛頂心陀羅尼經)	문종35(1081, 사경) 희종2-고종6(1206-1219) 고종연간(1219-1249) 충렬왕27(1301) 충숙왕4(1335) 고려후기	6
4	寶篋印陀羅尼[經]	목종10(1007) 의종6(1152) 충렬왕 18(1293)	3
5	白傘蓋摠持	공민왕14(1365) 우왕1(1375) 고려후기	3
6	大悲心陀羅尼經[啓請]	11세기(사경) 충렬왕19(1293)	2
7	佛說天尊却溫黃神呪經	고려후기 고려후기	2

3.3.2 주제별 특징

상기의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밀교 문헌에서 가장 많은 간행 회수를 보이는 『長壽經』의 경우 죄를 면하고 장수하는 護念을 설파한 전형적인 밀교 경전이다. 또한 빈도 2순위 문헌인 『梵書摠持集』에서는 다라니의 수행 방법과 다라니 패용을 통한 밀교 의식을 설행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3순위 『佛頂心陀羅尼經』 역시 전염병이 유행하는 나라에서 관세음보살이 전염병을 치료하는 영험담을

소개하였고, 4순위 『寶篋印陀羅尼經』 또한 造塔의 공덕에 따른 구복 기원으로 귀결되는 등 모든 문헌이 현세 구복의 신앙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고려시대의 밀교 신앙이 건국 초기에는 왕실을 중심으로 호국적인 입장에서 수용되었으나, 무신 집권기를 지나며 후기로 갈수록 밀교 신앙은 철저히 현실적이고 개인적 성향으로 변모되어 간다는 밀교 사상의 큰 흐름과도 일치한다.

또한 특기할 점은 이와 같이 사가나 사찰에서 판각된 밀교 문헌의 특징은, 고려시대 개설되었던 국가적 차원의 밀교 의례의 경향과는 다른 측면⁴⁶⁾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즉, 국가적 밀교 의례는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재난을 없애고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상기의 밀교 문헌에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무병과 장수, 질병치유나 구복을 빌어 풍요로운 삶을 기원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각종 陀羅尼와 曼荼羅 등 한 차례만 간행된 대부분의 밀교 문헌에서 보이는 공통점이기도 하다.

요컨대, 판찬 대장경을 제외한 단행 출판물로 전존하는 고려시대 밀교 문헌의 내용 및 해당 문헌의 기록을 살펴보면, 고려시대 밀교 성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즉, 질병치유와 수복 무강, 재앙 소멸 등 다분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들이 추구하는 구복과 평안이라는 관점으로 압축된다. 하지만, 이와 같이 간행된 문헌에서 드러나는 요소가 고려시대 밀교의 전반적인 성향을 대변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현시점에서는 밀교와 민속의 구분 또는 禪宗 등 다른 신앙과의 명확한 경계도 뚜렷하게 설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내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에서 살펴본 실물 자료와 기록에 대한 검토는 당시 민간에서 유행하였던 밀교 신앙의 결과물이 살펴본 것이므로, 당대의 밀교 의식 및 그 성향을 이해하는데 일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46) 김수연(2012), 103.

3.3.3 형태 및 내용

고려시대 문헌의 일반적인 특징은 문헌의 판각 형태상 권자본이나 절첩형 제작 방식이 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 시기 밀교 간행물도 대체로 이와 같은 양식을 따랐으나, 그 중 일부는 銀盒이나 經匣에 보관하여 휴대하기 편리한 수진본 또는 소형의 권자본의 제작되기도 하였다. 게다가 납탐이나 복장 의식에 사용하기 위한 낱장 인쇄물도 적지 않은 비중으로 남아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례로 추정컨대, 개인적인 차원에서 소재 구복을 기양하였던 당시의 밀교적 성향은 간행물의 판각 방식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고려시대 전반에 걸쳐 유행하였던 다라니 신앙의 기본적인 전제는 다라니의 독송 뿐 아니라 수지와 휴대만으로 영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당시의 밀교 문헌의 상당수는 납탐이나 복장 의식에 사용하기 위한 낱장 인쇄물로 제작되거나, 읽고 운반하기 편리한 실용성과 휴대성이 강조한 판각 방식이 선호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고려시대 밀교 문헌의 형태적 특징이라면, 권자본이나 절첩형이라는 일반적인 판각 방식 외에 상당수 자료는 편철된 방식보다 개별 인쇄물로 제작되었다는 점, 글자를 키우기보다는 휴대성과 실용성을 고려한 소형의 판각 방식을 병행하였다는 두 가지 특징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외형적인 특징 외에도, 내용면에서 드러나는 몇 가지 다른 분야의 경전들과 드러나는 차이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이 시기 밀교 문헌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陀羅尼나 眞言 등은 대개 분량이나 내용면에서 많지 않아, 『金剛經』이나 다른 경전류의 도입부나 끝부분에 첨부되어 수록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는 각 경전의 권수나 권말에 부가되어 개별 경전의 공덕과 더불어 주술적 기원을 배가시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둘째, 당시 간행된 밀교 문헌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간행 주체에 따라 본문의 분량이나 편성 및 그 수록 내용까지 거침없이 변형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앞선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동일한 밀교 경전이라 하더라도 사찰이나 간행

주체인 개인에 따라 陀羅尼와 眞言의 수록 여부 및 배열 방식 등에 다양한 변화를 준 사례에서 쉽게 확인되고 있다.

셋째, 당시 유통된 다라니경류의 경우, 전체 다라니경을 수록하기보다 『佛頂心陀羅尼經』의 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한 판에 전체 내용을 축약하여 새기거나 일부 핵심 내용만을 발췌하여 판각하는 소위 ‘축약본 다라니경’ 방식의 밀교 문헌이 유통된 사례를 지적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판각의 방식을 변용하여 도상으로 표현한다거나, 曼荼羅 형식의 판각을 통한 공덕 성취를 강조한 것도 고려시대 밀교 문헌의 특징으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다.

3.3.4 간행 장소

고려시대 간행된 밀교 문헌의 간행처는 지역이나 간행 대상에 따른 편향성을 찾기 어렵다. 물론, 문헌이 출판된 장소는 사찰에서 가장 많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사가와 관청에서도 꾸준히 문헌이 생산되고 있었다. 이는 당시 밀교가 사회 전반에 깊이 녹아들어 있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결국, 고려시대 밀교 문헌의 간행처는 사가 출판을 비롯하여 僧齋色이나 平壤府의 廣濟鋪, 中原府 등 관서는 물론, 사찰의 경우는 仁興社, 新荷寺, 無爲菴, 開泰寺, 寶城寺 등 지역을 아우르는 각지 사찰에서 두루 간행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맺음말

이상과 같은 검토를 통하여 고려시대 밀교의 성립과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시기별 밀교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다양한 출판 주체에 의하여 생산된 밀교 문헌에 대하여 통시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글에서 주안점을 두고 진행한 사항은, 당시 출판된 다양한 밀교 문헌 중

국가 주도로 조성된 대장경을 제외한 민간 출판물로 생산된 밀교 문헌의 서지적 특징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 밀교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이 희소한 탓에, 민간에서 출판된 밀교 문헌과 문헌의 간행 양상을 통하여 당시 밀교의 성격과 모습을 간접적으로 추정해 보고자 시도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결과, 고려시대 민간 출판물로 생산 및 유통된 밀교 문헌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간행 양상을 띄었다.

첫째, 간행 종수 면에서는 11세기 6종, 12세기 5종, 13세기 13종, 14세기 25종이 조사되었다. 이러한 종수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라 하더라도, 고려 후기로 갈수록 많은 밀교 문헌이 생산되었다. 여기에는 앞선 시기 밀교 문헌이 한전하는 이유도 있겠으나, 고려 후기의 혼란한 시대상과 더불어 이 시기 주술적 다라니 신앙이 성행한 탓에 다라니경류 출판물이 다수 조성되었던 원인도 있었다.

둘째, 밀교 문헌의 간행 빈도와 주제 면에서 『長壽經』이 12회, 다라니 모음집으로 그 수행법을 강조한 『梵書摠持集』이 9회, 관세음보살의 전염병 퇴치 설화를 담고 있는 『佛頂心陀羅尼經』 6회 등의 빈도로 출판되었다. 이 밖에도 당시 2회 이상 간행된 밀교 문헌들은 모두가 현세의 평안과 구복, 다라니 수행법이나 전염병 퇴치 등 한결같이 현세 구복적인 바램을 담고 있는 문헌들이었다.

셋째, 간행된 문헌의 형태 면에서는 권자본과 절첩본이 주를 이루었으나, 휴대성과 운반성을 고려한 수진본 또는 소형 권자본과 낱장의 인쇄물도 적지 않게 남아 있었다. 이러한 출판물의 형태는 당시 성행하였던 밀교 의식과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여겨졌다. 즉, 개인적 차원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소재 구복 신앙은, 간행물의 관각 양식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당시 유행하였던 다라니 신앙은 자료의 휴대만으로 그 효험이 전제되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넷째, 출판된 밀교 문헌의 분량 및 내용 면에서는 축약된 형태로 유통되거나, 간행 주체에 따라 본문의 수록 분량과 다라니의 편성 방식 등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드러났다. 이러한 간행물의 내용 차이와 편성 방식의 다양성은 밀교 신앙의 근본적인 속성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즉, 고려시대 밀교에서는 교리와 형식을

중요시하기보다, 관법 수행을 통한 깨달음과 이를 통한 개인의 평안을 얻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당시 주로 유통되었던 개별 인쇄물로 眞言 및 陀羅尼와 曼荼羅 등에서도 진언의 배열과 도상 형태 등에서도 크고 작은 변화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본문의 차이와 다양성은 당시 밀교 신앙에서 그 틀을 깨는 유의미한 변화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간행 장소 면에서는 모든 시기를 아울러 전국 각지의 사찰이나 사가, 관청을 불문하고 다양한 장소에서 출판물이 생산되었다. 이는 불교 국가였던 고려에서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그 만큼 밀교가 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었던 사실을 방증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단행본]

- 江田俊雄. 『朝鮮佛教史の研究』. 東京: 國書刊行會, 1977.
- 鎌田茂雄 著. 『朝鮮佛教史』. 東京: 東京大學出版部, 1987.
- 權相老. 『韓國寺刹全書』.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9.
- 권희경. 『고려의 사경』. 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6.
- 김동화. 『佛敎敎理發達史』. 서울: 불교통신교육원, 1994.
- 金斗鐘.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探求堂, 1980.
- 金澤庄三郎 編. 『朝鮮書籍目錄』. 서울: 成進文化社, 1976.
- 국립문화재연구소 編. 『불교민속문헌해제』.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5.
- 南權熙.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청주: 淸州古印刷博物館, 2002.
- 남권희. 『고려의 佛服藏과 染織』. 서울: 계몽사, 1999.
- 大正新修大藏經刊行會 編. 『大藏經: 昭和法寶總目錄』. 東京: 同會, 1979.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編. 『韓國佛敎撰述文獻總錄』.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76.

- 東國大學校 佛典刊行委員會 編. 『韓國佛教典書 第8冊』.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90.
- 리철화. 『조선출판문화사』. 서울: 사회과학출판사, 1995.
- 모리스 꾸랑 著, 이희재 역. 『韓國書誌』. 서울: 一潮閣, 1994.
- 朴相國 編. 『全國寺刹所藏木板集』. 서울: 문화재관리국, 1987.
- 서운길 지음. 『高麗密敎思想史研究』. 서울: 불광출판부, 1993.
- 서운길. 『韓國密敎思想史研究』. 서울: 불광출판부, 1994.
- 釋尾春苧 編. 『朝鮮古書目錄』. 京城: 朝鮮古書刊行會, 1911.
- 정보문화재단연구원 편.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유물의 연구』. 양산시: 성보문화재단연구원, 1997.
- 松長有慶 著, 張益 譯. 『밀교 경전 성립사론』. 서울: 불광출판부, 1993.
- 氏家覺勝. 『陀羅尼の世系』. 大阪: 東方出版, 1984.
- 安啓賢 著. 『韓國佛教思想史研究』.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83.
- 尹炳泰 編. 『韓國書誌年表』.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 李箕永 著. 『韓國佛教研究』. 서울: 한국불교연구원, 1983.
- 이재창 저. 『불교경전개설』. 서울: 동국대학교부설 역경원, 1982.
- 李智冠 著. 『韓國佛教所依經典研究』. 서울: 伽山文庫, 1993.
- 정성준 저. 『밀교학의 기초지식』. 서울: Eastwood, 2008.
- 鄭泰赫 著. 『密敎』. 서울: 동국대학교부설역경원, 1992.
- 鄭泰赫 著. 『밀교의 세계』. 서울: 동문선, 2002.
- 정필모 지음. 『高麗佛典目錄研究』. 과주: 한국학술정보, 2004.
- 鄭亨愚, 尹炳泰 編. 『韓國의 冊板目錄』. 서울: 保景文化社, 1995.
- 宗釋 著. 『밀교학개론』. 서울: 운주사, 1989.
- 천혜봉 저. 『羅麗印刷術의 研究』. 서울: 경인문화사, 1982.
- 최종남 외저. 『역경학개론』. 서울: 운주사, 2011.
- 坂内龍雄. 『眞言陀羅尼』. 東京: 平河出版社, 1990.
- 許興植 著. 『高麗佛教史研究』. 서울: 一潮閣, 1996.

[논문]

- 김수연. “高麗時代 密敎史 研究.”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2.
- 김영덕. “漢譯 密敎經軌 翻譯의 제문제.” 『密敎學報』 제5호(2003). 27-51.
- 김종천. “중국의 불전 간행 및 목록 편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91.
- 구자현. “한국의 밀교학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3. 미간행.
- 김성수. “新編諸宗敎藏總錄의 분류 체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2. 미간행.
- 남권희. “남선사 초조대장경의 서지적 분석.” 『한국중세사연구』 제28집(2010). 65-136.
- 남권희. “12세기 간행 불교자료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17집(1999). 373-420.
- 南權熙.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의 판본 연구.” 『國會圖書館報』 제38권 6호(2001. 11). 82-100.
- 남권희. “한국 기록문화에 나타난 眞言의 유통.” 『密敎學報』 7집(2005). 51-122.
- 朴泰華. “韓國佛敎의 密敎經典 傳來攷.” 『韓國佛敎學』 第1輯(1975). 45-62.
- 변동명. “충숙왕의 밀교대장 금자사경.” 『역사학보』 제184집(2004). 41-77.
- 서운길. “고려의 밀교와 정토신앙.” 『東國思想』 제14호(1981). 33-48.
- 서운길. “고려 밀교 신앙의 전개와 그 특성.” 『佛敎學報』 제19권 제1호(1982). 219-239.
- 우진웅. “한국밀교경전의 판화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0.
- 이시찬. “宋元시기 고려의 서적 수입과 그 역사적 의미.” 『東方漢文學』 제39집(2009. 6). 309-420.
- 임기영. “해인사 사간관전 소장 목판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9.
- 全東赫. “密敎經典의 新羅 傳來考.” 『중앙승가대학논문집』 제8호(1999). 93-160.
- 全東赫. “고려불교에 있어 밀교가 차지하는 위상.” 『중앙승가대학논문집』 제10호(2003). 67-81.
- 鄭泰赫. “韓國佛敎의 密敎的 性格에 관한 考察.” 『佛敎學報』 第18輯(1981). 23-60.

[웹사이트]

고려대장경연구소. <<http://kb.sutra.re.kr/ritk/index.do>>.

고려사. <<http://www.koreaa2z.com/index.cgi>>.

국가기록유산. <<http://www.memorykorea.go.kr/>>.

삼국사기. <<http://www.koreaa2z.com/>>.

삼국유사. <<http://www.koreaa2z.com/>>.

조선왕조실록. <<http://www.koreaa2z.com/>>.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한국불교종합시스템. <<http://buddha.dongguk.edu/>>.

한국고전적종합목록 시스템. <<http://www.nl.go.kr/korcis/>>.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